

제주소피아 열 여섯 번째 이야기 ‘울림’을 열며

안녕하십니까. 2015학년도 열여섯 번째 제주소피아의 편집을 맡게된 편집부원 철학과 15학번 유시후입니다. 이번 제주소피아의 주제는 ‘울림’입니다. 여러분은 ‘울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핸드폰의 진동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돌을 던졌을 때 물에 생기는 윤슬같은 아름다운 것까지 폭넓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울림’을 주제로 선정하는데 있어 제주대학교 인문대 학교의 ‘진양’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진양이란 지진의 진동이 최초로 일어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진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갈라지면서 광대한 범위에 걸쳐서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이런 땅의 흔들림에만 의미를 국한하여 이번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마음의 울림을 통한 공명’입니다. 이런 울림은 저희 철학과에도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철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생각’하는 학문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철학을 알게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철학함으로써 많은 울림을 받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이 남아 있으니,
예전처럼 천지를 뒤흔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다.
영웅의 용맹함이란 단 하나의 기개.

■ 16번째 제주소피아를 열며

세월과 운명 앞에 쇠약해졌다 하여도
+의지만은 강대하니,
싸우고 찾고 발전하며
굴복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알프레드 테니슨의 「울리시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 크디큰 울림을 줬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지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에게 하나의 빛이 되어 준 글입니다. 이 글을 계기로 운명을 탓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저뿐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철학을 보고, 영향을 받아 다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슬이 떨어진 물, 지진과 같은 단순한 울림조차 1차원적인 울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차례차례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인 생각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울리고 다시 그 파장으로 함께 울리는 철학. 공명하는 철학. 제주소피아 열 다섯 번째 이야기에 실린 많은 교수님과 학우들의 글을 보고 울림을 경험하고, 2016년의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5년 한 방울의 떨어지는 이슬이 되기를 희망하며,
철학과 15학번 유 시 후